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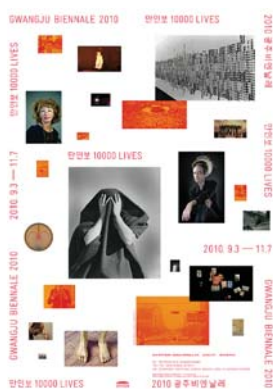
문화

KWANGJU BIENNALE 만인보 10000 LIVES



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출품작을 둘러보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KWANGJU BIENNALE 만인보 10000 LIVES



광주비엔날레 첫 주엔 '이제' '이제' '이제'

KWANGJU BIENNALE 만인보 10000 LIVES

# 현대미술의 美에 푹 빠지다

### 시민·학생·미술관계자 등 1만5000여명 전시장 찾아

### 일부 전시장 시설공사 늦어져 관람객 불편 겪기도

“수 많은 이미지를 골라 보는 재미가 있고, 발길을 끄는 이색 작품도 많아요.”

제8회 광주비엔날레의 개막 이후 5일 현재 1만5000여명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현대 미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아시아 최대 아트마켓인 2010한국국제아트페어(KIAF2010)의 참여 화랑 관계자 200여 명이 비엔날레를 찾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5일 “개막 이후 꾸준히 관람객들이 늘고 있으며 지난 제7회 대회 같은 기간 대비 10% 가량 관람객이 증가한 추세다”고 밝혔다.

관람객들은 전시장 곳곳을 돌며, 31개국 134명의 작가가 만든 9000여개 이상의 이미지를 느긋하게 지켜봤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주부 이소희(36·광주시 북구 양산동)씨는 “그동안 어려운 작품이 많아 이해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전시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아기자기한 작품이 많은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서둘러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단체 관람객의 발걸음도 이어졌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자 40여명, 광주양산중 학생 200여명, 지역 미술학원 관계자 100여명, 31보병사단 장교 20여명 등이 전시관을 찾았다.

또 지역 미술교사와 전국의 미술대학 관계자들이 단체 관람을 위해 미술관을 먼저 둘러보기도 했으며 특히 신디 셔먼과 워커 에반스 등 유명 사진 작가들이 작품이 많이 출품돼 국내 사진화도들의 관람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반면 설치 공사가 늦어져 전시장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전시 공간이 여러 곳이다 보니 일부 전시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전시장 설치공사가 개막 직전에야 마무리돼 전시장 내부에서 역한 냄새가 풍기고, 영상작품을 선보이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눈이 따갑거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다.

특별프로젝트 ‘시장 속의 광주비엔날레-장삼이사’ 전이 열린 양동시장 옥상 양동문화센터 전시장에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문 설명서가 전혀 붙어있지 않아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양동문화센터 전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건축 자재가 곳곳에 널려있어 처분한 작품 감상이 어려웠다.

서양화가 김용관(창평고등학교 미술교사)씨는 “회화 작품의 수가 너무 적어 교육 차원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전시장 칸막이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 원활한 동선을 잡기도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KWANGJU BIENNALE

만인보 10000 LIVES

KWANGJU BIENNALE

## 2010 아트광주 폐막

광주의 첫 국제 미술장터인 ‘2010 아트 광주’(9월1~5일·이하 아트 광주)가 5일 막을 내렸다. 이번 아트페어는 유명 갤러리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였고, 다양한 기획전시·전문가 대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판매액도 목표액(40억원)을 웃돌았다.

# 첫 국제 미술장터 ‘청신호’

### 유명 갤러리 대거 참여... 판매액 40억 넘어

### 내년, 부족한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해야

▲첫 행사 절반의 성공=아트페어가 비엔날레와 더불어 국제 화단을 움직이는 거대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국제 아트페어를 열었다는 점은 의미있는 행보였다.

특히 비엔날레를 치르는 도시에서 열린 미술장터답게 세계적인 유명 갤러리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수준 면에서는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영국의 리스갤러리와 이탈리아의 컨티뉴아갤러리 등 해외 갤러리 23곳과 박여숙 화랑, 예화랑 등 국내 30곳이 참여했다.

미디어 작가 이이남씨는 “현대 미술이 비엔날레 중심에서 아트페어로 옮겨가고 있는데, 아트광주는 광주 미술이 세계 시장으로 진입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매면에서는 목표액을 웃돌기는 했지만 잠재된 미술시장의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나 일부 화랑에서는 작품을 전혀 판매하지 못했고, 준비 소홀과 홍보 등 행사 진행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아트광주조직위원회는 5일 “중국 작가 아이웨이웨이 작품 3점이 7억5000만원에 팔리는 등 목표액이었던 4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관람객도 2만5000여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아트페어인 KIAF의 지난해 매출액은 136억원, 대구 아트페어의 매출액은 12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토미오 코야마 갤러리, 박여숙화랑, 예화랑, 중국 탕 갤러리 등 단 한 점도 판매하지 못한 화랑들도 많았다.

가나아트 갤러리는 “유명 컬렉터들의 구입을 기대했는데 판매 실적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토미오 코야마 갤러리는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컬렉터들이 오지 않았다”면서 “참여 화랑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전시 진행도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내년 대회 준비는? =예산 마련이 시급한 과제다. 이번 아트광주는 국비 1억, 시비 3억, 민간 투자 4억, 기업체 후원 1억5000만원 등 전체 예산 9억5000만원이 들었다. 내년엔 2회 아트페어를 위해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2억, 시비 2억이 전부다. 올해 수준의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 6억여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서울오픈아트페어(SOAF)는 정부가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작품을 구입해 주는 ‘아트뱅크’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 대회는 각각 3억9000만원, 1억4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페어 문

을 열자마자 1억~4억여원의 기본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는 셈이다.

하지만 아트광주는 ‘아트뱅크’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 당초 광주시립미술관이 최대 5억여원 어치를 구입하겠다는 계획마저도 1억여원으로 축소됐다. 이마저도 예산마련과 광주시립미술관 작품구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는 10월 말에나 실질적인 작품 구입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내년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기업체 후원을 이끌어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트뱅크’와 광주시립미술관 구입 예산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 미술 애호가들이 쉽게 주머니를 열 수 있도록 KIAF, SOAF 등 국내 아트페어들이 진행하고 있는 ▲20~30% 할인 특가전 ▲100만원대 소품 경매전 등 다양한 이벤트도 고민해 봐야 한다.

참여 화랑에 대한 유입책도 필요하다. 이번 아트광주에 참여한 화랑은 부스 크기별로 550만원(3.6×7.2m)에서 3천200만원(10.8×10.8m)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일부 화랑의 판매가 부진하다보니 내년 참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아트광주에 참여한 한 화랑 관계자는 “조직위에서 실제 작품 구입할 수 있는 컬렉터들이 많이 초청해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화랑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다”면서 “전세계를 뛰어 해외 ‘큰손’들을 데려오고, 이들의 숙박을 지원해 주는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때는 다르되 가락은 같다’

### ‘황토제’ 정기연주회... 1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국악실내악단 황토제(대표 전미향) 정기연주회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때는 다르되 가락은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세동조(異世同調)’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국악 창작곡을 선사한다.

한태수씨가 만든 실내악 합주 ‘Fly to the sky’를 시작으로 해금과 첼로 피아노가 어우러진 ‘하늘빛 그리움’, 피리를 위한 ‘나무가 있는 언덕’, 판소리 ‘흥부가’ 중 ‘박타령’을 재해석한 ‘박타령’, 옛 민요를 경쾌한 실내악곡으로 편곡한 ‘새타령, 폐지나침



황토제 정기연주회 공연 모습

황토제 정기연주회 공연 모습. 지난해 1999년 결성된 황토제는 전통음악을 순수하게 살리는 한편 현대 흐름에 맞게 발전시킨 국악창작곡에도 애착을 갖고 있는 그룹으로 박태민·이왕재·김해경·이정숙·김한아·오혁·강아라씨 등이 활동하고 있다. 문의 010-5606-75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KWANGJU BIENNALE

만인보 10000 LIVES

KWANGJU BIENNALE

### 우전해수욕장 매일 운행

# 슬로시티 증도

전라남도 신안군 KTX 한국철도공사 **엘도라도리조트** 남해관광 광주 0621225-5544 서울 1566-2233

### 서틀버스 운행

● 당일서틀 : 15,000원(주중) 왕복 / 18,000원(주말) 왕복

**증도 1일 체험관광** ※ 주말이용시 3천원 추가

| 상 품                   | 요 금     |
|-----------------------|---------|
| 관광버스+엘도라도 해수사우나       | 20,000원 |
| 관광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       | 20,000원 |
| 관광버스+소금동굴(힐링센터)+해수사우나 | 25,000원 |

(계좌번호) 광주은행 : 013-107-019079 (주) 남해관광

남해관광(09:10) - 광주역(09:20) - 광천터미널 맞은편(09:35) - 상무역(09:45) - 송정리역(10:10) - 증도(엘도라도리조트)

##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 MEGABOX

최고급관

|     |                        |
|-----|------------------------|
| 1관  | 아저씨 (18세)              |
| 2관  | 에프터라이프 (15세)           |
| 3관  | 죽고싶은 (18세)/프레데터스 (18세) |
| 4관  | 물란: 전사의 귀환 (12세)       |
| 5관  |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18세)     |
| 6관  | 피라냐3D (18세)            |
| 7관  | 악마를 보았다 (18세)          |
| 8관  | 에브리바디올라잇 (18세)         |
| 9관  | 아저씨 (18세)              |
| 10관 | 킬러스 (15세)              |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정상요금 부과

### CINUS

|    |                              |
|----|------------------------------|
| 1관 | 인생선 (12세)/죽고 싶은 (18세)        |
| 2관 | 킬러스 (15세)                    |
| 3관 | 에프터 라이프 (15세)                |
| 4관 | 라스트에어벤더(3D) (전제) 프레데터스 (15세) |
| 5관 | 에브리바디올라잇 (18세) 악마를 보았다 (18세) |
| 6관 | 아저씨 (18세)                    |
| 7관 | 피라냐(3D)(디지털) (18세)           |

색깔있는 영화선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

상당원 연결 방법 - (1번 or 2번) - 0번  
☎ 1588 - 7941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자탑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련던약사거리  
☎ 1544 - 0600